

선동주 헌법 기본강의 강의계획서

“중요기출쟁점 분류 및 실전적 단권화정리

+ 선 이해 후 암기의 핵심요소인 키워드의 분석정리

+ 핵심쟁점요소의 두문자정리를 통해

법학이 처음인 수험생도 필요할 것을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강의!”

■ ■ 담 당 선 동 주

■ ■ 강의일정 2022년 5/30(월) ~ 6/21(수), 총 14회, ※월~목 강의

■ ■ 시 간 [오전 강의] 9:00 ~ 12:30

■ ■ 강의교재 ▶ 주교재 : 헌법집중(전정2판, 선동주·김강노 공저, 서점구매)

■ ■ 강의목표 ‘기본강의’는 기본서학습의 기초정립과정에 해당하는 강좌입니다. 헌법기본서인 ‘헌법 집중’(전정2판, 선동주·김강노 공저)에 수록된 헌법이론, 조문, 판례를 헌법이수제 시험에 적합하게 분석·정리함으로써 수험헌법의 기초지식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공통된 출제경향인 판례시험화 추세와 헌법이수제 시험의 출제경향인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출제비중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헌법조문과 핵심 헌법부속법률 및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헌법 전반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기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 강의특징 ‘기본강의’에서는 체계적이고 실전적인 강의진행을 위해 ① 중요쟁점의 분류 및 실전적 단권화 정리(기출쟁점의 분석·집계를 통한 중요쟁점의 이해·정리), ② 선이해후암기의 핵심요소인 키워드의 분석정리, ③ 주요한 핵심쟁점요소의 두문자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 교재소개

‘기본강의’의 강의교재로는 ‘헌법집중’(전정2판, 선동주·김강노 공저)을 사용합니다.

본 교재는 헌법이론, 조문(헌법조문+부속법률), 판례(헌법재판소판례+대법원판례)를 통념적인 헌법 체계에 따라 통합구성한 실전헌법기본서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에 직관적인 주제어와 코멘트를 기술하여 헌법적 논의의 출발점과 방향성을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둘째, 본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여 각인된 정리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셋째, 본문 내용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 반드시 인식해야 할 기초법개념들의 의미·내용을 각주로 구성하였습니다. ④ 넷째,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헌법시험에서 출제된 중요한 기출항목들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⑤ 다섯째, 헌법조문과 헌법부속법률 및 헌법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헌법이수제의 유동적인 출제비중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강 및

학습가이드

1. 예습방법

‘기본강의’ 과정에서 예습은 필수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강의 전날이나 당일에 ‘헌법집중’의 당일 진도 부분을 목차위주로 가볍게 속독한 후 수강에 임한다면 강의흐름을 파악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 복습방법

‘기본강의’ 과정에서 복습은 필수항목에 해당합니다. 복습시에는 기출표시와 강조점이 부여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강약을 조절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일 진도와 관련된 헌법조문을 꼭 숙지하시고 가능한 한 중요 헌법조문은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3. 질문방법

집중력 있는 강의진행을 위해 되도록 강의를 마친 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카페 “선동주 헌법”을 통해 질문을 하셔도 무방하나,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당부말씀

‘기본강의’는 헌법수험의 기본체계를 습득하는 최초의 과정입니다. 당해 강의일정 내에서 헌법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헌법수험의 분석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강 및 학습에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강의교재인 ‘헌법집중’의 이해와 정리에 모든 학습요소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기출문제 분석의 중요성은 기본강의 단계에서부터 강조되고 있으므로, 헌법조문 직결사항들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필자의 ‘헌법집중 헌법조문정리(제6판)’을 참고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강의일자	강의진도	강 의 내 용
■ 제 1 회	5/30(월)	37-63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제 2 회	5/31(화)	64-98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 제 3 회	6/1(수)	99-145	지방자치제도, 기본권보장의 역사, 기본권의 성격,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포기,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보호의무, 기본권의 갈등
■ 제 4 회	6/2(목)	146-189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기본권의 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평등권
■ 제 5 회	6/6(월)	190-236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 6 회	6/7(화)	236-273	주거의 자유, 거주 ·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
■ 제 7 회	6/8(수)	273-315	집회 ·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 제 8 회	6/9(목)	316-359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참정권,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론,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제 9 회	6/13(월)	360-401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국민의 기본적 의무
■ 제 10 회	6/14(화)	404-442	대의제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정부형태, 의회주의, 국회의 구성과 조직,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국회의 권한 I
■ 제 11 회	6/15(수)	442-489	국회의 권한 II,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대통령, 행정부
■ 제 12 회	6/16(목)	490-529	선거관리위원회, 사법권의 독립, 법원의 조직, 사법절차와 운영, 법원의 권한,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위헌법률심판 I
■ 제 13 회	6/20(월)	530-570	위헌법률심판 II,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 제 14 회	6/21(화)	2-36	헌법의 의의, 헌법학연구, 헌법의 제정, 헌법의 개정, 헌법의 변천, 헌법의 수호, 대한민국헌정사,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급공채 · 입법고시 헌법시험 총평 및 헌법 공부방법

(선동주 헌법연구소)

I. 5급공채 · 입법고시 헌법시험 운영개요

2015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2016년 지역인재7급 추천채용제도 개편, 2016년 국회사무처 공개경쟁채용시험제도 개편에 따라 2017년도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지역인재7급 추천채용의 제1차시험, 입법고시 제1차시험 과목으로 헌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의 공고에 따르면 헌법 과목은 Pass/Non-Pass제(60점 이상 획득자 패스) 형태로 운영되며, 헌법이론 및 헌법판례를 모두 포함하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5급공채 · 국립외교원선발 · 지역인재7급채용 헌법시험(이하 ‘5급공채 헌법시험’으로 약칭함)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5급공채 헌법시험**은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다르게 공직적격성의 **소극적 검증장치**로 운영되고 있으나,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에 준하는 **적극적 검증장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I. 5급공채 · 입법고시 헌법시험 총평

1. 일반적 출제경향 분석

헌법시험의 출제항목에는 헌법규범의 구성사항인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 순수이론이 포함되고, 헌법시험의 출제영역에는 헌법학의 구성체제인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이 포함됩니다. 5급공채 · 입법고시 헌법시험의 경우 항목별 출제비중은 보편적인 시험경향에 따라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고, 영역별 출제비중은 조문 · 판례의 구성비에 따라 **통치구조론, 기본권론, 헌법총론의 순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1) 5급공채 헌법시험

5급공채 헌법시험의 경우 그 시행과정에서 보여준 특유한 경향성과 불안정한 방향성으로 인해 앞으로의 동향을 분석해내기가 어렵습니다. 2017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55%)이 압도적인 비중으로 출제되고 대부분의 지문이 단편적인 지식체계로** 구성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과 헌법판례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33%)의 출제비중이 대폭 확대됨과 동시에 지문구성수준이 소폭 조정**되었고, 2019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다시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41%)과 헌법판례(33%)의 출제비중이 보다 확대**되었으며, 2020년 시험에서는 **헌법판례(25%)의 출제비중이 다소 낮아진 대신 헌법조문(51%)의 출제비중이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31%)의 출제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헌법판례(37%)의 출제비중이 증가**하였고, 2022년 시험에서는 **헌법판례(61%)의 출제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5급공채 헌법시험의 운영 경과를 헌법과목의 도입취지 및 연혁, 독자적인 시험운영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일정 부분 예견되었던 현상입니다. 5급공채 헌법시험은 7급공채와 달리 변별성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과목이 아니라 **공무원의 공직관 · 국가관을 검증하고 헌법소양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수제(60점 pass)의 형태로 도입**되었다는 점, 헌법과목이 유지되어온 다른 채용시험과 달리 **2007년 행정고시 과목에서 헌법이 제외된 이후 10년 만에 부활**되었다는 점, 국회 주관의 국회직채용시험, 법원 주관의 법원직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고유한 영역의 공직담당자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이 그러한 예측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공직관 · 국가관 검증을 표방한 이수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구체적 사례해결을 위한 헌법논리보다 국가조직규범인 헌법조문과 그 일체로서 실질적 헌법을 구성하는 중요 부속법률에 출제비중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으므로, 지엽발단적인 지식이 강요되지 않는 한 현재 상황이 제도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5급공채 헌법시험의 고유성도 검증된 실효성을 도외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각종 헌법시험에 일반화된 출제경향에 순차 적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가늠해 본다면, 2021년 시험을 기준으로 할 때 **헌법조문의 비중은 적정 범위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은 핵심**

조항 위주로 축소되고, 헌법판례의 비중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 5급공채 헌법시험 기출분석표]

2020년		2021년		2022년	
출제항목	출제영역	출제항목	출제영역	출제항목	출제영역
헌법조문(51지문)	통치구조론(14문제)	헌법판례(37지문)	통치구조론(14문제)	헌법판례(61지문)	통치구조론(12문제)
헌법판례(25지문)	기본권론(7문제)	부속법률(30지문)	기본권론(7문제)	헌법조문(23지문)	기본권론(8문제)
부속법률(24지문)	헌법총론(4문제)	헌법조문(31지문)	헌법총론(4문제)	부속법률(12지문)	헌법총론(5문제)
		순수이론(2지문)		순수이론(4지문)	

(2) 입법고시 헌법시험

입법고시 헌법시험의 경우 7급공채 헌법시험과 대등한 수준에서 헌법판례에 비중을 둔 최근의 시험경향과 난이도가 적절하게 조율된 문제구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분석요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조문의 출제비중이 높았던 2019년 시험을 떠올려보면 입법고시 역시 헌법조문 문제의 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헌법조문지식 검증의 강화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전후로 하여 헌법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감수성과 헌법정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므로 향후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이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3개년 입법고시 헌법시험 기출분석표]

2020년		2021년		2022년	
출제항목	출제영역	출제항목	출제영역	출제항목	출제영역
헌법판례(72지문)	통치구조론(12문제)	헌법판례(94지문)	통치구조론(11문제)	헌법판례(95지문)	기본권론(11문제)
부속법률(25지문)	기본권론(8문제)	부속법률(17지문)	기본권론(9문제)	부속법률(16지문)	통치구조론(7문제)
헌법조문(24지문)	헌법총론(5문제)	헌법조문(7지문)	헌법총론(5문제)	헌법조문(9지문)	헌법총론(7문제)
순수이론(5지문)		순수이론(5지문)		순수이론(5지문)	

2. 영역별 출제경향 분석

기본권 파트는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으로서 양적 우위를 가지지만 정리부담이 큰 영역은 아닙니다. 반면에 헌정사, 기본제도 및 통치조직, 헌법재판소 파트는 정리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5급공채 및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출제비중도 높은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헌법의 각 영역을 구성하는 내용들의 대다수는 이해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이해 중심의 학습과정에서 순수 암기요소의 정리를 병행한다면 수험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전략적인 시험대비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본권’ 파트는 정리할 분량이 가장 많은 영역이지만, 개별 인권유형의 연원과 보장취지에 기초하여 쟁점별 분석력을 확보하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② ‘헌정사’ 파트는 우리나라 입헌 정치사의 포괄적 분석력을 요하는 영역이지만,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개혁의 취지와 직결되는 제도적 사항들의 도입과정이 출제되고 있으며, ③ ‘기본제도’, ‘통치조직’ 파트는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정리량이 방대한 영역이지만, 제도취지에 직결되거나 시사적 이슈 또는 중요판례가 형성된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고, ④ ‘헌법재판소’ 파트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조직, 헌법소송의 절차에 관한 포괄적 지식을 요하지만, 헌법재판제도의 도입 및 운영의 취지에 직결되는 판례 및 관련 조문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헌법시험에서는 최신헌법판례가 유력한 출제대상이면서 불의의 타격요소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최신판례들은 대부분 기본서나 문제집 등에 수록·반영되어 있지만, 시험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에 선고된 최신판례는 특강이나 교재를 통해 별도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최신판례 문제는 대부분 결정주문에 직결되는 요지의 정리만으로도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므로 학습부담은 크지 않지만, 이를 도외시할 경우 결정적인 패인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여야 합니다.

Ⅲ. 5급공채 · 입법고시 헌법 공부방법

1. 헌법공부의 특성

헌법은 정리부담이 큰 과목에 속하지만 일단 장악력이 형성되고 나면 함부로 배신하지 않는 효자과목이기도 합니다. 헌법과목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체계적 학습과정이 요구되는 데, 이는 헌법시험의 출제대상이 헌법조문을 중심으로 한 유권적 해석(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 · 무권적 해석(학설)의 총체라는 광범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방대한 헌법과목의 시험대상을 객관적으로 한정하여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출문제의 분석적 고찰과 이를 토대로 한 학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 체계적 학습방법

(1) 이해와 정리

헌법은 추상성 내지 구조적 개방성의 속성으로 인해 행정법 등 구체화입법과 구별되는 고유한 정리부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이해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사안들, 이해를 넘어 적극적 암기까지 요구되는 항목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키워드의 분석정리, 핵심쟁점요소의 두문자정리 등 적극적인 정리방법을 동원하여 정확한 지식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선택과 집중

다양한 수험도구들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자료의 홍수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적합한 수험방법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학습을 수행해야 하므로, 선택과 집중의 학습전략은 헌법수험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됩니다. 시험에서 검증이 요구되는 지식의 범주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집중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험강의를 섭렵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증된 수험도구의 도움을 받아 실용적인 지식체계를 범주화하고 순차 집중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 학습방법

(1) 기출문제 분석에 기초한 학습

방대한 헌법과목의 수험영역을 객관적으로 한정하여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체계적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출문제의 분석에 기초한 학습이 요구됩니다. 기출문제로 현출된 출제의 의도는 장래의 출제를 암시하는 지표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출지문은 수험적합성 있는 공부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큰 매체이므로 그 의미를 간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기출지문의 의미는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기초한 학습범주의 마련이 강조됩니다.

(2) 헌법조문 및 헌법판례 중심의 학습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 **헌법조문은 헌법학의 본체로서 이와 직결되는 내용의 헌법이론 · 헌법부속법률을 포함하여 중요한 출제대상이** 됩니다. 헌법조문은 수험과정 전반에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의 기준이 되므로 **기본교재의 학습과정에서부터 단원별, 주제별로 관련된 헌법조문을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반드시 최종정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법학과목은 판례시험화 되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이러한 판례시험화 경향에 충실하게 판례문제가 압도적인 비율로 출제되고 있으며, 5급공채 헌법시험에서도 이러한 경향에 순응하여 **차츰 판례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완성도 높은 판례가 법학이론을 선도하고 있다는 측면과 판례가 복수정답의 시비 등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가장 객관화된 정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험경향에 비추어 볼 때 선택형 시험의 포괄적인 대상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비중구분이 필요한바, **중요 헌법판례와 이에 직결되는 내용의 헌법조문 · 헌법부속법률 ·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확장 학습**을 하는 것이 수험적합성 있는 학습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